

<동정자료>

김정렬 차관, "재난급 폭염에도 도로 안전 이상 없도록 할 것"

국도1호선·천안~아산 고속도로 현장 방문...철저한 예방조치 당부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6일(목) 고속도로·국도 현장을 찾아 최근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도로에 변형 발생 등의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했다.
- 먼저 국도1호선(세종시 조치원읍 부근)을 찾은 김 차관은 살수차 운영 등 도로변형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.
 - 이 자리에 김 차관은 “최근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,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 수준의 대응을 주문하신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재난급 폭염으로부터 도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 - 또한, “도로변형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순찰 강화와 선제적 보수 등을 통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실제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시간 내에 긴급보수를 실시할 것”을 지시했다.
- 이후 김 차관은 천안~아산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“현장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”을 요청했다.

2018. 7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